

괴기에서 년센스까지 : 1920년대 취미독물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재현 양상

— 『별건곤』을 중심으로 —

박 숙 자*

1. 들어가며
2. 읽의 대상으로서의 근대 풍경
3. 알 수 없는 불가해의 기호, 신여성 혹은 '괴미인'
4. 취미독물과 통속의 기호

* 인하대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겸임교수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1920년대 근대 문화의 수용 과정에서 드러난 성별화된 인식을 '奇遇'와 '怪'의 수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1920년대 『별건곤』에서는 낯설고 이질적인 근대문화를 알 수 있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실로 다시 쓰기 시작한다. 과학의 권위를 빌리기도 하고, 수치화·통계화하기도 하고, 혹은 전근대의 가치관과 비교하기도 하면서 '奇遇'와 '怪'의 수사로 포착된 '불가해한 현실'을 '알 수 있는 현실'로 번역한다. 그런데 이같은 태도들이 여성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기이하고 낯선 풍경으로서의 신식 여성을 어떻게 의미화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 '괴미인'을 통해 드러나는 데, 여기에서 묘사된 여성들은 주목의 대상이 되기는 하되 '알 수 없는 대상'으로 의미화되면서 오히려 불가해의 기호로 남게 된다. 특정한 가치 판단을 통해 여성을 부정하거나 혐오하는 게 아니라, 불가해한 기호로 재현됨으로써 년센스의 기표로 재현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 인물은 시간성의 표지를 잃고 탈역사화되면서 통속의 기호로 쉽게 포섭된다.

핵심어 : 奇遇와 怪의 수사, 취미독물, 괴미인, 탈역사화

1. 들어가며

며칠전 모 신문 시평란에 TV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오락’인지 ‘교양’인지 모르겠다는 글이 실렸다. 세상의 숨어있는 정보를 재미있게 가공해서 이를 소개하는 몇몇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다. 이 논자는 ‘오락’과 ‘교양’을 별개의 것으로 상정하면서 오락과 교양의 경계가 흐려진다고 **한탄하고** 있었다. 이 사고 속에서 오락과 교양은 별개의 범주로 전제되고 있었다. 하지만 ‘대중’들의 ‘알권리’와 ‘즐길 권리’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대중 매체에서 이 두 가지 지향은 분리될 수 없는 문제인 듯하다. 혹여 그렇게 보이고 있다면 이는 다른 문제에서 파생된 영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1920년대 대중 취미잡지를 표방하고 있는 『별건곤』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가. 언뜻 보기에 『별건곤』은 계몽의 강박에서 자유로워 지지도 않은 듯 보이고, 그렇다고 믿거나 말거나 식의 말초적 기사만 싣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취미독물(讀物)을 표방하면서 대중들의 취미 증진과 교양 함양을 위한 기사를 싣고 있으며 대중적인 교양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잡지를 지향하는 듯 보인다. 그래서 『별건곤』¹⁾에서는 문학이나 철학, 역사와 같은 것들을 원론적으로 다루는 대신 다양한 기사 형식을 고려하여 흥미있게 담아내려고 한다. 예를 들어 ‘소설’이라는 장르 대신 애화나 비화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역사 대신 야사나 강담의 이야기 형식

1) 1926년 개벽사에서 발간한 취미잡지. 1920년대 여성인물의 재현 양상을 검토하면 서 『별건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여성인물이 어떻게 오락과 통속의 기호로 의미화 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다. 『별건곤』은 1920년대 대중매체의 시작을 알리는 잡지로서 여성의 기호가 어떻게 통속의 기호로 가공되는가 하는 문제를 풀어 내기에 적절한 잡지이다. 즉, 이 글은 『별건곤』의 특성이나 양상을 소개 분석하는 연구라 아니라 『별건곤』이라는 대중매체에 여성의 기호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이다.

을 차용한다.²⁾ 또 사전에서 봄직한 단어풀이를 신거나 외국의 문물을 믿거나 말거나 수준에서 소개하기도 한다.

노농대중에게 무슨 취미가 되었느냐? 박물관 동물원 공원 극장이 다 그러하다. 그것은 다 일부 인사의 독점적 향락기관이 되고 마랐다. 우리의 노농대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든지 이 빈취미증을 면해 볼 길이 없다[...]그중에서 진기한 소식을 알고 심허하는 것이 취미성의 욕구이다[...]오직 갑렬한 인쇄물이 저급의 문체로 기록되야 아모리 심산유곡에라도 갈 수 있게 된다 하면 그에 의하야 사진으로 기사로 한자리 수백 수천의 대군중과 석기여 놀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말하고 춤추는 감을 일으키여 인간적 취미에 어느 정도 만족을 줄 것이다.³⁾

위의 언급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취미독물은 노농대중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대군중과 석기에 놀고 먹고 마시며” 노는 쾌감을 줄 수 있는 대중적 “향락”의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또한 “알고 심허하는 것”, 알고자 하는 욕구 또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별건곤』에서 얘기되는 취미독물은 대중들의 알권리와 즐길 권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형태의 것이다⁴⁾.

2) 이경돈은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연구』 46집(2004.6)에서 『별건곤』에 실린 ‘취미독물’들이 ‘문학’의 타자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놓여있는 ‘소설외서사’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1920년대 개혁류의 계몽의 서사가 쇠퇴하면서 별건곤류의 취미의 서사가 부각한다고 지적한다. 그 『별건곤』에 선보이는 여러 형태의 서사를 ‘소설외서사’로 분류하면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를 역사적으로 규명한다. (“1920년대 중반은 고급 글쓰기로서의 문학과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글쓰기로서의 ‘記’, ‘話’, ‘談’으로 통칭될 수 있는 소설외서사가 사회적 공의를 획득해 가는 시기였으며 그 임계점이 1927~8년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벽타, 「빈취미증 만성의조선인」, 『별건곤』(1926.11), p.61.

4) 대표적인 취미 잡지는 『별건곤』이지만, 이 당시 ‘취미’와 ‘괴기’는 당대의 유행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남선은 1929년 5월에 『괴기』 잡지를 내는데 그 발간 목적이 “편자의 기호와 독자의 취미를 접근하야 인문과학에 대한 일반 識濼을 향상” 하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즉 “학술의 대중화”를 “괴기”라는 코드를 통해 피하고 있다. 최남선은 어떻게 하면 인문과학을 대중들의 취미에 맞게 전달할 수 있

그러나 『별건곤』에 실린 여러 글들을 보면 이 두 가지 지향이 원만히 해결되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괴상하고 기이한 일들이 속수무책 쏟아지면서 독물(讀物)을 통한 향락도, 교훈도 간단하지만은 않은 듯하다. 「돌발적 세계 대사건」, 「소설이상 영화이상 진기한 연애 전람회」, 「정체 모를 괴미인에게 속든 일」, 「상상도 못할 진기한 실화」의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근대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가 불가해의 기호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 글들에서 '怪'와 '奇'는 단순한 선정적인 수사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유입되는 근대문화의 낯설음을 반영하는 가치관의 혼란을 반영하는 코드이다. 1929년에 최남선은 학술의 대중화를 지향하면서 『괴기』 잡지를 발간한다. “조선 인문과학 중심 통속 잡지”라는 부제가 달린 이 잡지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학술이라는 교양과 통속이라는 흥미이다. 물론 이 잡지의 내용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원만히 결합되어 있지 않다. 최남선은 통속성을 얻기 위해 '괴기'의 코드를 차용하고 있지만 이같은 시도는 원만히 성취되지 않는다. '괴기'의 수사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고자 했으나 대중의 반향을 얻지 못한다. '奇'와 '怪'의 수사가 발간 목적과 달리 수사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 볼 만하다.

『별건곤』 잡지를 보면 '奇'와 '怪'의 수사로 표현된 사건들이 자주 소개된다. 이 표현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선정적인 수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충분히 이해되지 않아서 생기는 불안과 같은 양극을 담아내는 소통의 코드이다. 당대 조선인들이 느끼는 혼란한 가치관의 정립 문제가 징후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기호인 것이다. 때문에 낯선 문화를 익숙한 것으로 전용하는 것, 그렇게 혼란스러운 문화를 당대에 익숙한 가치체계

을까를 고민하면서 “괴기”라는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잡지에서 “괴기”는 특별한 함의를 가지는 단어가 아니라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는 소통의 코드로고 봄직하다.

혹은 합의할 수 있는 코드로 전환하는 노력들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그래서 '별의 별 것'들을 나름의 가치체계 안으로 끌어들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노력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것이 때로는 근대의 매정한 풍경으로, 또 때로는 근대적인 과학의 이론이나 지식으로 제시된다. 이를 통해 대중이 원하는 취미독물의 소통 코드가 마련된다. 그런데 이 같은 양상이 여성의 기호에 이르면 좀 달라진다. 이 기사들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여성인물을 불가해한 것으로 드러낸다. 특히 '괴미인'으로 재현되는 신여성의 기호는 시간성의 표지를 잃고 쉽게 가공될 수 있는 허구의 형상으로 자리매김 된다. 때문에, 여성의 형상이 당대적인 맥락에서 소통되지 않고 탈역사적인 문맥 안에서 소통된다. 이 글에서는 이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2. 앞의 대상으로서의 근대 풍경

'별건곤'이라는 말이 그러하듯, 근대의 위용은 화려하지만 종잡을 수 없는 비의에 가득 차 있다. 무수한 상점을 통해 볼거리를 자랑하는 진고개도 있지만 파리를 날리는 "유령"과 같은 종로도 있으며, 휘황찬란한 진기명품과 동시에 괴이한 풍경이 공존한다. 이 별천지 같은 각양각색의 기호는 천차만별의 취미와 연결되면서⁵⁾ 이것을 일관성 있게 의미화하려는 노력이 행해진다. 즉 개인적인 취향과 기호가 다양하게 이질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이를 일관된 의미로 위계화하고 통합하려는 노력들이 행해진다. 이는 불가해한 것을 설명가능한 논리로 변환시키는 노력이다. 이를 통해 '별의 별것'

5) 취미의 요구가 개인의 사적영역이라는 물질적 기반을 통해 마련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줄고, 「취미와 젠더, 상상되는 사적 영역과 탐구되는 여성」, 제48회 국어국문학 학술대회 발표문(2005.5))

들 간에 위계가 정해지기도 하고 명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들에 이름이 부여되기도 한다. 그래서 요령부득한 것들이 이해가능한 것들로 의미화되기도 하고 그동안 알 수 없었거나 앎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세상의 현상 혹은 이를 포함하는 근대의 문화가 새롭게 해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각 지방의 풍습을 근대 문화 안에서 새롭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 혹은 새롭게 부각되는 신유행에 대해 논평하는 것, 또는 복잡한 현상들을 미분화해서 알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들 모두 당대의 풍경을 근대의 논리로 설명하려는 노력이다. 각 지방의 풍습을 자세히 소개하는 「지방색」란이나 신유행을 전하는 「신유행 괴유행」, 알 수 없었던 세계의 비밀을 과학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는 과학 상식까지 그동안 알 수 없었거나 혹은 알려고 하지 않았던 현상들이 근대적 가치체계 안에서 새롭게 의미화된 예이다. 이 과정에서 전근대의 풍습은 괴이한 악풍속으로 부정되고, 알 수 없었던 세계의 비밀은 각종 통계와 과학이론을 통해 설명된다.

怪風俗! 怪風俗! 하지만은 서울사람의 喪家에서 대신 뜻하는 것처럼 우스운 일이 어디 있스랴. 외국 사람은 조선 사람의 소리를 늦코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하는 것도 怪異라고 하겠지만은 조선사람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한 습관이 되었스닛가 별로 이상히 생각할 것이 업스나 특히 서울사람의 대신 곡하는 것은 누구나 怪風이라 할 것이다. 喪人은 가만이 그대로 있고 하인, 廳直이 등이 일을 하고 다니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별안간 「여보 물떠오, -술가저오。」 하고 심지어 아이고 아이고 넘병을 하고 보두청에 갈일이라고까지 한다. 그것은 과거의 량반들이 자기가 곡은 시시로 할 수 업고 체면상 아니 할 수도 업서서 자기의 하인을 대신으로 식히는 버릇이 그대로 남은 것이다.[...] 그리고 연중행사에 관한 怪風俗 중에는 1년의 首月인 정월 중의 怪風俗이 甚多하나 그것은 昨年本誌의 正月風俗展覽會記事에 자세히 기록되었기 이만 略한다.⁶⁾

山川祭! 이 노름은 이름부터 좃코 노름도 또한 그 일흠과 가티 近方 山川

6) 「전조선 괴풍속 전람회」, 『별건곤』(1928.1), pp.49~53.

을 보고 제사를 올리는 노릇! 「아니 神靈님을 위해 祭祀를 드리는 大事입니다。」하고 가장 優秀한 地方色처럼 對答한다나! 서울친구들은 단통침 벗고 옷을 노릇이 이 노릇이야. 그러나 咸南地方도 元山이나 咸興 가튼 그래도 좀 열린 곳은 그저 形式的으로만 대강 소나 잡고 고기나 논화먹지만 식골노 가면 참 아들 딸, 장가 식집잔치 이상의 大事처럼 훌림훌림 大훌림하게 채런다나. 쉬쉬! 쉬! 서울친구들 또 웃겠다?⁷⁾

위의 인용에서 서술자는 喪家에서 喪人대신 곡을 하는 조선인의 관혼상제의 풍속을 ‘怪風’으로 얘기한다. ‘괴풍’의 판단 근거는 “과거의 량반들이 자기가 곡은 시시로 할 수 업고 체면상 아니 할 수도 업서서 자기의 하인을 대신으로 식히는 버릇이 그대로 남은 것”, 즉 봉건적인 악습에 다름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 아래 인용도 마찬가지이다. 시골 사람들은 산천제를 “우수한 지방색”으로 여기겠지만 서울사람이 보기에 이 지방의 풍속은 “쉬쉬”할 만한 것이다. 이 글들에서 낯설게 보고 있는 ‘지방색’은 전근대-근대의 시선으로 지방-서울을 전유한 것으로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으로 조선의 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예이다. 이렇게 전근대-근대의 가치체계를 통해 지방색에 열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괴’의 수사는 민족 국가의 정체성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설명하는 가치판단의 근거로 쓰이게 된다.

또한, 『별건곤』에서는 교양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 기사가 자주 소개된다. 그래서 그동안 알 수 없었거나 납득할 수 없었던 것들이 자세히 설명된다. 대개의 경우는 과학 상식에 관한 것들인데 상식이라고 볼 수 없는 것까지도 교양 상식인 양 소개된다. 일례로 「해양 중에 있는 인어는 미녀인가 동물인가 아름다운 전설에서 재미있는 과학으로」(1926.11)라는 글이 그 예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전설 속의 인어를 과학적인 이론을 통해 사

7) 이정구, 「산천제 합남촌 근대군대」, 『별건곤』(1927.12), pp.160~161.

실화한다. 우리가 암암리에 상상했던 것을 과학의 힘을 빌려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심지어 ‘인어와 그 육체의 효용’이라는 부연을 통해 인어의 피부가 방패와 탄환으로 사용된다는 예까지 첨부함으로써 인어의 현실성을 강조한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과학의 권위를 빌어 의미화한 예이다. 이 기사에서 비과학적인 전설의 이야기를 실제의 일로 둔갑시키는 과정에서 불가해한 일은 이해할 수 있는 일로 수용된다. 과학의 이름으로 그럴듯함이 가해진 일같은 예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근대적인 이론으로 전유하려고 했던 강박에 다름 아니다⁸⁾.

이와 유사한 태도로 여러 현상을 수치화·통계화함으로써 근대적인 논리로 설명하려고 한 기사들도 자주 드러난다. 『별건곤』에서는 여러 현상을 수치화 통계화 한 기사가 많이 실린다. 그 한 예로 1928년 12월호에 실린 「진지한 수치 통계」에서는 개인의 일생을 수로 환산해 놓는다. 인간이 먹는 밥의 양, 오줌의 양 등 삶의 단면을 미분화해서 이를 통해 인간 전체를 드러낸다. 그러면서 이같은 통계를 통해 특정한 교훈을 전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좀더 생산적이기 위해서는”과 같은 주장이 전제되는 것이 그 예이다. 『별건곤』에서는 이와 같이 ‘별의 별’ 통계를 제시한다. 이 중에는 총독부 조사에 의한 것도 있고, 외국신문에 실렸음직한 것도 있다. 이것들은 대부분 대상을 미분화 수치화해서 그 대상의 특성을 알리고자 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대 세계를 기계적으로 파악하려고 한 단면이다. 분명한 것은 근대세계를 얇은 대상으로 전제하고 이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의 일생을 70세라고 하고 보통으로 한끼에 세 종류의 밥을 먹는다 하면 총계가 22만 9,950공기가 되는데 이것을 石數로 치면 84석이요 米粒數로

8) 과학의 권위를 빌어 신비한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성과학을 들 수 있다. 1920년대부터 성과학의 권위를 통해 여성의 몸을 해부하고 의미화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행해지는 가운데 처녀시기를 신비화하는 이론도 제기된다.

계산하면 8억 5004만粒이다.[...]다음은 이발에 드러가 보자. 남자는 보통 매월 2회를 이발하다치고 1회 50전으로 계산하면 840원이고 1회에 1시간이 걸리는 셈 잡고 일생에 이발시간은 1,680시간 2개월과 20시간이 된다. 이상에는 소비의 통계이나 이하에는 생산의 통계를 보자.[...]일생의 배노량은 153石 3斗(평균)이다. 이것을 酒價로 판다면 누구나 3만66원의 부자가 될 수 있으나 반대로 汲取料 76원 60전이 된다. 오죽도 함부로 못 쌀 세상이다. 실례이지만 좀 더 큰 편의 생산물?의 통계를 보게 해주었스면... 법의학상의 설명으로는 大人 1일1회 小兒 2회가 표준이나 大人의 일생 중 변소에 드러가 있는 시간을 1회 20분이라 하면 3,400시간 141일과 16시간 4개월 21일 16시간이 된다고 한다.⁹⁾

앞의 예들 모두 근대적인 가치 체계나 이론, 혹은 과학의 권위를 빌어 근대 세계의 이모저모를 설명한다. 이것들은 원래 굳이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없거나 해명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다. 그럴 필요가 없었거나 혹은 합리라는 잣대가 불필요한, 그것 나름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것들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근대적인 논리로 적극적으로 전유해가면서 조선의 가치체계를 정립하게 된다.

그러나 전근대/근대의 가치기준이 분명하다고 해도 빠른 속도로 유입되는 근대 문화가 당혹스러운 것은 분명한 듯 보인다. 「신유행 괴풍속」¹⁰⁾ 같은 경우가 그것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낯선 유행을 '怪'라는 수사를 동원해서 거리화하면서 새로운 유행에 대해 이질감을 드러낸다.

집집이 『새서방』

집집마다 새 『노랑새』 기르는 일이 크게 유행한다. 그것도 생활의 여유가 있고 또 새를 기르는 취미나 알고 그리 하얏스면 용혹무괴이지만은 남이 기르넛가 나도 나도 하고 류행에 따라서 새를 기르는 것은 참으로 우서운 일이다. [...]그 새의 장사가 朝鮮사람일 것 가트면 그래도 돈이 조선사람에게 떠러지

9) 「진기한 수지통계」(1928.12), pp.88~89.

10) 「신유행 괴풍속」, 『별건곤』(1928.12), pp.150~151.

닛가 별문데가 업겟지만은 지금의 현상을 보면 전부가 외국인(특히 中國人)의 손에서 사오고 먹이는 좁쌀까지도 또한 만주의 좁쌀이니 다른 것으로 외국사람에게 돈을 빼끼는 것도 기가 막히는데 무명의 새로 해서 돈을 빼앗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도 알수 업는 일이다. 그 대신에 실지로 유익한 병아리를 한아라도 기르는 것이 엇더할가, 올치-알일이 있다. 그 새의 목침이 고히니 집안에 잇는 여학생들이 그대로 노래를 잘 배우고 모양이 입부니 그대로 모양을 잘 내고 안늬 수늬이 입을 한테 대고 점답게 키쓰를 잘하니 연애교육의 모범이 되고 좁쌀을 잘 먹으니 쌀밥 먹을 것 업는 판에 조밥 먹는 것이나 배우라고들 기르는 모양이 안인가. 네전 날에 새 신랑을 鳥郎이라고 하였스니 집집마다 외국 신랑마지를 하는 세음이지.

鐵窓何其多

철창생활이라 하면 누구나 감옥생활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 서울에서는 새로히 가옥을 건축하면 잘 짓거나 못 짓거나 의례히 창에는 철창이나 철주를 가설한다. 그것은 물론 근래에 일반의 생활이 곤난하고 인심이 효박하야 盜難이 만흔 까닭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철창 이외에 다른 방법은 더 업슬가. 넷말에 땅을 그려서 獄이라 하야도 그곳에 드러가기를 실혀한다고 하였거니 하물며 자괴 주택에다 감옥과 가티 철창을 가설하는 것이야 엇지 조흔 일이라 할가부냐. 주인되는 자기는 그런 것을 아는 지 모르는지 알 수 업지만은 남이 보기에는 너무도 불쾌를 늦기게 된다.

서술자는 서울 여자들의 흥색 취미를 보면서 예전 기생들이나 하던 ‘古風’을 복구하는 것 같다며 의아하게 여긴다. “홍우산을 워 그리 조와” 하며 “치마의 빗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며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를 짓는다. 그 아래 인용도 마찬가지로이다. 가옥에 철창을 가설하는 일을 두고 예전 같으면 감옥에나 설치하는 것인데 어떻게 집에 설치하는 것일까 하고 물으며 새로운 유행이어서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지만, 이 새로운 풍속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이하다고 느낀다.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기는 해야 하는데, 가치관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예전 운운하며 과거에 빗대어서 이해할 뿐이다. 그럼에도 이들

의 태도에서 분명하게 엿볼 수 있는 것은 이 낯선 현상에 대해 알려고 한다는 것이다. 왜 집집마다 노랑새를 키우는 유행이 번졌을까에 대해 필자는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손해인데 라며 가당치도 않은 이유를 끌어오고, 집집마다 철창을 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한다. 이들은 이런 유행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나름의 생각을 내어놓으며 상상하고 설명하고 있다. 근대적인 가치나 과학적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설명을 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은 기존의 가치체계를 통해 나름의 항변과 생각을 내어 놓고 있는 것이다.

물론 “별의 별 것들” 중에 쉽게 포섭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의미화하기 어려운 채 망설이게 되는 것들도 있다. 서술자 스스로도 ‘불가사의’하다고 말하면서 특정 의미로 통합하지 못하는 것들이 징후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낯선 풍경을 어떤 식으로든 알 수 있는 대상으로 설명한다. 통계를 이용해 수치화하기도 하고, 전근대적 체계와 비교해서 나름의 가치를 궁구하려고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과학의 권위를 빌려서 설명하기도 한다. 설명이 필요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대상들까지 앎의 대상으로 수용해서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낯설고 이질적인 것들이 있지만, 나름의 논리를 통해 설명하면서 근대의 풍경으로 조망하게 된다. 이를 통해 ‘奇遇’와 ‘怪’의 수사로 포착된 대상들은 알 수 있는 대상으로 거듭나게 된다.

3. 알 수 없는 불가해의 기호, 신여성 혹은 ‘괴미인’

근대의 풍경 중에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은 대표적인 것으로 신식여자의 외양을 들 수 있다. 신식여자의 외양 만큼 세태를 반영해 주는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여성의 외양은 주목의 대상이 된다. 이같은 관심은 ‘괴미

인'의 수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괴미인'은 가치판단이 유보된 상태에서 일단 낮은 이국의 풍경으로 드러난다. 근대적인 풍경이라는 점에서는 쉽게 설명가능할 법한데, 서술자들은 한결같이 불가해한 풍경으로 서술한다. 잡지 뿐만 아니라 신문에서도 「산간 벽지의 괴미인」(『매일신보』, 1922.10.25.), 「상허서 온 괴미인」(『매일신보』, 1936.5.10) 「정체 모를 괴미인」(『매일신보』, 1937.5) 등으로 '정체모를' 여인으로 소개한다.

만주나 혹은 상해 등지에서 유행하는 양복과 구두를 신은 이십오륙 세 씩 되어 보히는 어엿은 여자를 불러다가 사법계 주임이 친히 취조하였는데 사건의 내용은 전대 비밀에 붓치고 다못 고소사건이라고만 하나 탐문한 바에 의하면 이 여자는 시내 산자동에 산다는 신모라는 여자로 만주로부터 조선사람 몇 명이 수천원을 휴대하고 드러와 각처로 다니며 창기로 팔아먹을 작정으로 만히 여자를 사간 일이 있서 그후 종로 경찰서에서 범인을 수색중이든 바 혹은 그 일에 관계되지 안었는지도 몰은다더라¹¹⁾

전용덕이란 여자가 얼마전부터 사리원에서 와서 자기는 조선 〇〇을 위하여 무엇을 계획하노라고 하며 권총 탄환 삼발만 내어보이고 전과 두명을 향하여 동지자가 되어 달라는 까닭에 갖치 여러 곳으로 다니며 무삼 사건을 계획하는 것 갖치 하여 노코[...]. 그 여자는 신식여자의 하나로 탄환 삼발만 가졌을 뿐으로 탐정인 모양이라더라¹²⁾

앞의 인용에서처럼 '괴미인'이라고 칭해지는 여성들은 일단 “유행하든 양복과 구두”를 입은 이국 양풍의 스타일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술자들은 이 여성들을 “신여성”으로 짐작하거나 “만주나 혹은 상해 등지”에서 건너왔을 거라고 추측한다. 그런데 이렇게 소개된 괴미인들은 협잡과 술수를 꾀하는 여우처럼 남자들을 농락하고 골탕먹히기 일쑤인 데다가 심지어 체

11) 「종로서에 양장한 괴미인」, 『동아일보』(1925.3.15).

12) 「彈丸으로 密偵질, 괴미인의 행동」, 『동아일보』(1927.8.15).

포되지도 않은 채 종적이 묘연하다. 이같은 여자를 보면서 서술자가 짐작하는 것은 구변이 좋고 모양새가 세련된 것을 근거로 신식여자나 신여성이라고 상상하는 것이고, 둔갑하는 능력과 종적이 묘연한 것을 두고 ‘독갑이’ 같다고 어렴짐작하는 것이다. ‘신여성’처럼 보이는 ‘독갑이’ 같은 여성, 혹은 탐정처럼도 보이지만 그 정체가 짐작이 안되는 여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도둑년!」 하고 덜미를 움켜쥐고 馬山線으로 되끄러올였다. 여자는統蓆 가서 제 물건을 모조리 수습해 가지고 영영 도망질해 오는 길이었다. 인제야 솟안에 든 특기라 늦칠가부냐고 안심을 하고 몇 마디 말을 주고 받고 하는 동안에 뒤스간에 가는 척하고 일어난 여자는 다시 흔적을 감추어 바렸다. 사나 회가 이 눈치를 채이고 황당히 차져나섰을 때는 벌써 여자가 北行車를 밧구어 타고 저만침 떠나간 뒤였다. 그는 독갑이한테 훔난 것 갖해 더 추격할 용기도 업시 그 자리에 펄적 주저안저서 실진한 사람가티 되야 집으로 돌아왔다[...]
알고 보면 이 여자는 (일흔과 성은 하도 만호니 無名氏나 마찬가지로) 이런 협잡을 해먹으려고 3년 동안을 바랑을 질머지고 嶺南一帶를 돌아다니면서 지방 형편을 철저히 조사하였다 한다. 칠곡 안동 등지에도 이 여자에게 弄務를 당하여 놀아난 富豪子弟가 한 두 사람이 안이라 하니 그 수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짐작하고도 남는 바이다. 이 怪業人을 한번 질드려 볼 膽太한 偉丈夫는 업는가?! 누구나 가련한 그 젊은 敎員을 위해 복수해 줄 사람은 업는가?¹³⁾

색정귀의 사대염왕

때마침 광동에 새 정부가 생긴 후 구라파의 새 풍조가 한시에 몰려 들어 모든 것이 사람의 눈을 끄을 었었다. 그런 중에도 四大艷王이라고 부르는 네 여자- 누구나 훌륭한 가명의 딸들노 羅蘭西 呂虹生 林愛仙의 삼인 또 하나는 우미안이가 風流女의 대표로 情界의 艷王이라고 젊은 남자들의 입 꼬에서 떠러질 겨를이 업었다. 여미인은 물론 생기기도 출중하게 잘났섯지만 奇風異裝

13) 「지침금 이십만원 영남괴미인의 정체, 新郎을 求하러 편답수천리, 『별건곤』(1930. 12), p.170.

으로 사람의 눈을 끄고 기괴한 행동에 더욱 놀내었다. 『남자라니 그까지 것들 우수워서! 꼭 미친개 날뛰듯 해! 조금만 엇된 듯하게만 달내주면 강아지처럼 말도 잘듣고 텀벼드는 것이 참 귀여워! 내게는 남자라는 것은 학자건 대신 이견 부자건 모도 작난감가티 밧게는 안이 녀겨져!』美顔은 누구 압헤서든지 공연히 이런 말을 하기를 끄리지 안이 하였다[...] 14)

나는 그 익일 오전 8시에 그 여자를 차자갓스나 『정처업시 떠난다는 편지한 장을 남겨놔고 어딴로 가버렸다』는 주인의 말에 역시 나의 추측이 틀이지 안었구나 하고 돌아섰다.

自初至終로 수수걱기인 이 사건에 대하여 나는 당시에 이리케 판단을 하고 수첩을 덮혀버렸다.15)

위의 인용문에서 한 여성을 ‘괴미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이 여성에 대한 가치판단이 분명하지 않아서 생긴 표현이다. 본문 안에서는 “이 신여성을 맹냥한 망상광이 안이면 험잡꾼”이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의미화하고 있지만, 글의 마지막에 가서는 이 여성들이 한 행동과 상관없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노라는 포즈를 취한다. 아니 정확히 말해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괴미인들이 추파를 던졌다든가 ‘奇風異裝’을 했다거나 혹은 이 여자에게 복수를 해주자거나 하는 진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말해 이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더라’라며 말끝을 흐리거나 수수께끼같은 일이라면서 사건의 진상을 흐리게 하거나 또는 독갑이에게 흘린 것 같으면서 여성의 존재조차 의심한다. 나름의 추정까지 마친 사건에 대해 수수께끼라고 하거나 독갑이 같다는 등 종적이 묘연해서 찾을 수 없다는 등 하면서 이 여성들을 알 수 없는 불가해한 대상으로 의미화하는 것이다. 이미 취재한 사건이고, 나름대로 들은 정보가 있을 텐데도 모른다라거나 혹은 ‘-라더라’라며 이 사건의 현실성을 휘발시킨다.

14) 「三千餘男子를 弄絡한 稀世妖婦, 廣東 怪美人」, 『별건곤』(1929.8), pp.99~104.
15) 김두백, 「正體모를 怪美人에게 속든 일」, 『동아일보』(1929.1).

'괴미인'들을 추적해서 사건 조사하고 그녀들이 어떤 행동까지 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재현하고 있지만 필자들이 마지막에 취하는 태도는 모르겠다는 것이다. 괴미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 진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들의 존재 자체를 비현실적인 존재로 상정하며 의심찍어 한다. 때문에 이 여성들은 이 기사 안에서 '독감이'로 '수수격기'로 비유된다. 독감이에게 홀린 것같다거나 수수께끼처럼 알 수 없는 일이라거나 하면서 필자들은 이 여성을 여귀의 형상으로까지 몰고 간다. 이로 인해 이 여성들의 현실적 갈등이라든지 혹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하는 국면 자체가 사장되거나 후경화된다.

취재까지 끝마친 사건이고 사건의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세세히 적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신여성은 불가해의 기호로 의미화된다. 이 때문에 신여성들은 비현실적인 존재로 또는 초월적인 존재로 드러나면서 현실적 맥락도 함께 소거된다. 신여성의 기호가 당대의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기호임에도 이 여성들이 불가해한 기호로 판명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성이나 현실성은 외면된다.

사실, '괴미인' 기사의 대부분을 보면 '괴미인'은 양풍을 한 신식여성으로 어림짐작된다. 이 여성들은 이국풍의 양복을 입고 나타난 것처럼 손쉽게 '독감이'처럼 변신하고 둔갑하며 사람을 홀리는 사기와 협잡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행방을 짐작할 수 없는 아리송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 여성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로 의미화되고 그녀들을 둘러싸고 있던 시간성의 표지가 무력화된다. 근대적인 이국풍경으로 대중의 시선을 받았던 신여성들이 탈역사적인 형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인 인물을 다루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별건곤』에서 기담 괴담 특집을 기획할 때 여성 기인으로 황진이를 꼽는데, 황진이가 역사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소개하는 문맥을 보면 오히려 역사성이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호청은 깜작 놀라며 그 소년이 비범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수히 情을 許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소년은 성명도 가르쳐 주지 안코 그대로 갔었다. 그 뒤 심삭만에 현금은 일개 美女子를 나헛스니 그가 곳 문제의 黃眞伊이다. 黃眞伊는 나올 때에 삼 일 동안이나 온 집에 향기가 가득하고 잉태할 때에도 또한 기연으로 잉태한 까닭에 세상 사람들이 그 소년을 선인이라 하고 따라서 黃眞伊도 선녀라고 하얏었다. 그러나 그것이 다 黃眞伊가 미인인 까닭에 호사자들이 지어 한 말이지 이 세상에 엇지 선인이 잇스며 또 眞伊선녀일진대 하필 黃씨의 姓을 가지게 되었스랴. [...] 처음에는 眞娘을 보고 稱歎하야 갈오되 자기가 오십여 년간을 화류장에서 놀았스되 저러한 미인은 처음 보왔다 하며 선녀라고 잇클더니 급기야 眞娘의 노래를 듯고 놀나 일어나 갈오되 이것은 분명히 洞府(즉 선계)의 여운이니 엇지 인간에 이러한 調가 잇겟느냐 하얏다. 이 몇가지의 일반 보와도 眞娘의 인물이 엇더한 것과 노래의 엇더한 것을 족히 짐작 할 수 잇다.¹⁶⁾

위의 인용에서 보다시피, '황진이 나올 때에 삼일 동안이나 온 집에 향기가 가득하고 잉태할 때에도 또한 기연으로 잉태'했다고 서술하는 등 황진이의 인물묘사는 고전소설에서 봄직한 초현실적인 묘사이다. 인물의 비범성을 이같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奇人> 특집에 실린 다른 인물들의 묘사와 비교해 보면 이같은 양상은 좀더 분명해진다. 다른 '기인'의 경우 인물의 비범한 자질을 초현실성을 통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업적을 통해 드러난다. 그런데 황진이의 경우에는 그의 역사적인 업적보다 그의 태생이나 외양 등 비역사적인 면모를 통해 드러난다.

즉 여성인물의 경우에는 역사적인 인물이든 혹은 당대의 풍경을 상징하는 근대적 여성이든 시간성의 표지가 지워지면서 오히려 탈역사화 된다. 신여성이든 혹은 그렇지 않든, 부정되거나 혹은 긍정되더라도 '奇'와 '怪'의 수사로 포착된 신여성들은 불가해한 기호로 혹은 허구속의 인물로 상상되는 것이다.

16) 청오생, 「여류대기인, 개성명기 황진이」, 『별건곤』(1929.8), pp.22~25.

4. 취미독물과 통속의 기호

근대 들어 새로운 가치체계와 낯선 문화가 수용되면서 근대의 풍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조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찾아진다. 기존의 가치관이나 상식을 위반하며 펼쳐지는 괴상한 풍경은 그것 나름으로 의미화하고, 새로운 가치체계로 보았을 때 낯선 전근대의 풍속은 또 그것 나름으로 재해석하며 이를 '奇遇'와 '怪'의 수사를 통해 드러낸다. 즉 수치화·도표화하면서 근대의 풍경을 그럴 듯하게 해석하기도 하고, 과학의 권위를 빌려와 그동안 설명될 수 없었던 전설속의 일들을 사실화하기도 한다. 근대의 담론을 통해 설명될 수 없었거나 혹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 근대의 가치체계로 논의되면서 근대의 풍경들이 나름의 가치체계를 정립해 나간다. 그리고 근대 속에 공존하고 있는 낯선 문물과 풍습이 앞의 대상으로 수용되면서 시간성의 표지가 주어지게 된다.

그런데 '괴미인'으로 포착된 여성인물의 경우는 그 양상이 좀 다르다. 다른 것들과 달리 여성인물의 경우에는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인식의 불가해성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여성인물을 유표화했던 시간성의 표지가 소거된다. 알 수 없거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근대의 낯선 풍경이 근대적인 가치체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와 사뭇 다르다. '괴미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졌던, 근대적인 풍경으로서의 이국적인 외모가 시간성의 표지로 인식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괴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표지로 작용하는 것도 같은 예이다. 즉 일반적으로 낯선 문화를 이해하는 경우 당대의 체계 안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반면, 괴미인을 전유하는 방식은 오히려 잘 모르겠다 혹은 '-더라'의 태도를 취하면서 배제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단순한 혐오와 부정의 태도가 아니라 여성을 탈역사화하고 있는 것의 문제이다¹⁷⁾.

‘괴미인’에게 불가해의 표지가 주어지고 동시에 시간성의 표지가 지워짐으로써 여성 인물은 쉽게 허구화될 여지가 생긴다. ‘독갑이’로, 수수께끼로, 혹은 귀신으로 의미화되면서 이를 매개로 또다른 허구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공산도 있어 보인다. 실제로 괴미인의 기사들에서 주목할 것은 시간성의 표지를 지우고, 알 수 없다 혹은 모른다는 담론을 유포함으로써 사실의 기사들이 허구적인 분위기를 띠게 되는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괴미인들은 쉽게 상상되고 가공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성급할지도 모르겠지만 여성의 기호가 대중 매체 안에서 시간성의 표지를 반납함으로써 통속의 기호로 손쉽게 가공되는 것도 이런 사정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짐작해 볼 만하다. 여성의 기호가 불가해의 기호로 의미화됨으로써 허구화될 공산이 커지는 것, 이것이 년센스¹⁸⁾의 기호이자 통속의 기호로 여성의 기호가 쉽게 차용되는 이유가 아닐까 짐작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괴미인의 기호는 특히 1920년대 신여성에 대한 호기심과 거부의 포즈가 드러난 표상이다. 이같은 기호가 대중매체 안에서 의미화될 경우, 호기심과 거부라는 태도만으로 가공되는 게 아니라 시간성의 소거를 통해 탈역사화되면서 쉽게 상상되고 가공되는 듯 보인다. 이것은 또한 취미독물의 안에서 추구되는 두 가지 목적-교양 혹은 오락-이 사실은 성별화된 차이로

17) 이 글은 신여성성이 어떻게 통속의 기호로 쉽게 가공되면서 ‘오락’의 기호로 이용되는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신여성성을 ‘혐오’와 ‘배제’의 수사로만 의미화해 온 방식에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연구이다. ‘혐오’와 ‘배제’로서의 신여성성에 대한 서술자들의 태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같은 태도에 덧붙혀져서 통속의 기호로 사용되기 위한 조건을 가능하기 위한 연구이다. 그래서 이글에서는 신여성성이 어떻게 시간성의 표지를 잃은 채 상상되는지 하는 문제를 탐구하고 있다.

18) ‘년센스’는 1930년대 일본 내지의 향락 산업 및 성풍속이 식민지로 이동한 것으로 일본의 퇴폐적 문화가 유입되면서 자주 이용되었던 말이다. 이에 대해 소래섭은 “년센스는 에로틱한 육체나 기괴한 사건들을 바라보는 데서 생겨나는 감각적 쾌락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비웃고자 하는 웃음에 대한 욕망과도 연결”(앞의 책, p.21)된 말이라고 지적한다. 본고에서는 에로 그로 년센스가 성별화되고 있음을 가정하면서 년센스의 기호가 그 이전의 ‘기괴’의 수사가 한층 강화되어 ‘불가해’의 기호로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인해 구분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취미독물 안에서 교양과 오락이 동시에 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두 가지 지향이 대립적으로 구성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성별화된 인식이 도모한 일 현상이 아닌지 가정해 볼 만하다.

□ 참고문헌

『별건곤』 『괴기』

김예림, 「조선, 별천지의 소비에서 소유까지-에로 그로 취향과 식민지 근대의 타자상상」, 『1930년대 후반 근대 인식의 틀과 미의식』(소명출판, 2004), pp.258~285.

김진량, 「근대 잡지 『별건곤』의 취미담론과 글쓰기의 특성」, 『어문학』 88호(2005.6), pp.331~351.

김춘식, 『미적 근대성과 동인지 문단』(소명, 2003), pp.9~143.

문경연, 「1920~30년대 대중문화와 『신여성』」, 『여성문학연구』 12호(2004), pp.303~338.

박숙자, 「1920년대 미행과 목격의 담론화」, 『여성문학연구』 11호(2004), pp.251~271.

소래섭, 『에로 그로 넌센스-근대적 자극의 탄생』(살림, 2005), pp.13~35.

이경돈, 「별건곤과 근대 취미독물」, 『대동문화 연구』(2004), pp.249~287.

Abstract

From "grotesqueness" to "nonsense": Review of the 1920's hobby reading text and female characteristics in Byolgeongon

Park, Suk-Ja

This recent research attempts to outline the strangeness and heterogeneity which occurred in the process of accepting modern cultures in the 1920s Korean modern literatures. Surprise, alertness, and curiosity which were inevitable in the influx of modern cultures were described through the rhetorics of KI(strange) and KUE(grotesque). These have been revealed, in one sense, in terms of the repulsive metaphor comparing the modern and premodern, and in the other sense, in the metaphor of the surprise and marvelousness. In this process, KI and KUE were used as the means of values judgement, not as the rhetorics of ambiguity. However, these rhetorics were used differently when they were applied to the values judgement of female characteristics. Modern women in the strange and outlandish environment were described as "the bizarre beauty"; those women were considered as the subject of absurdity as well as the target of attention. In other words, modern women were neither negated nor abhorred, but represented as the subject of "nonsense" which overwhelmed the mere values judgement.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odification of women in the mass media from the perspective of materialism and snobbism.

key words : the rhetorics of KI(strange) and KUE(grotesque), the bizarre beauty, the hobby(taste) text, nonsense.

■ 본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0월 2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11월 1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